



協同研究의 場으로 활성화 할터

會員倍加운동 · 國際學會가입 적극 추진

『韓國土質工學會는 土質 및 基礎工學에 관한 學術 및 技術 발전을 도모하여 國民의 福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學術 단 체입니다. 따라서 토질 및 기초공학에 관한 기초이론과 응용연구는 물론 조사연구 및 성과의 보급, 기술지도,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학회지 발간, 연구보고 및 도서관행,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등의 목적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토질공학의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학회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韓國土質工學會 秦柄益 회장(漢陽大工大토목공학과교수)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문의 발전과 국내외 기술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점차 전문화·세분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토목·건축·농업토목·암반역학·광산 및 지질학분야에 관계하고 있던 土質人들이 뜻을 모아 84년 6월에 토질공학회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토질공학회의 역사가 3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실은 14년전인 1973년도에 학회설립을 위한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설립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84년도에야 비로소 창립하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秦회장은 토질공학회는 다른 학회와 달리 건축, 토목, 광산, 지질학등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회의 회원들이 기술교류



◇ 秦柄益 회장

등 상호 공동관심사를 위해 횡적으로 조직되어 형성된 학회이므로 자칫 단결이 느슨해지기 쉽다는 문제점도 없지는 않지만 각 전공분야의 학술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동연구의 場으로서 활용한다면 기존의 개개학회때 보다 훨씬 토질공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강조한다.

『학회의 역사가 일천하여 회원수나 財政的인 면에서 아직 미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학회 설립 3년여만에 회원수가 5백여명에 달하고 기업체나 대학등의 특별회원이 60여개 단체에 이르러 다른 新生學會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근시일안에 일정케도에 올라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秦회장은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한가지씩 착실하게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

역사가 오래된 큰 학회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작정이라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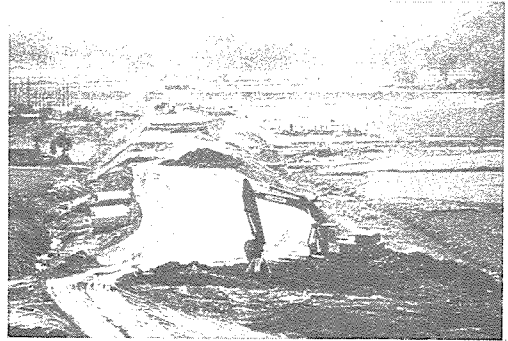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 현재 5 백여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1 천명으로 늘리기 위한 會員倍加운동을 전개, 우선 외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다.

특히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정보 및 첨단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강습회 및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학회지 및 기술도서등의 발간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인 이론이나 新工法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이와함께 선진외국의 최신정보 및 자료교환을 위해 國際土質工學會에의 가입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다.

『가까운 日本의 경우 지금부터 30여년전에 토질공학회가 창립되어 현재 회원수가 14,000여명에 이르는 대학회로 발전했습니다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회 설립은 물론 학문적인 배경도 알아 발전속도가 늦을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秦회장은 건설기술분야에 있어 토질·기초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종사자 역시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 학문이나 기술적인 뒷받침이 이를 따르지 못한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학회가 앞장서서 토질공학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원래 토질 및 기초분야는 온 지구의 기초지반상에 축조되는 모든 구조물의 설계·시공을 함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는 넓고 심오한 영역을 차지하는 학문이어서 타학문분야보다도 앞서 발전되어야 할 분야이면서도 뒤늦게 연구 발전된 것이 사실이지요』 秦회장은 그것은 흙의 특성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처리의 획일화가 어렵기 때문에 토목분야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전하게 된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건설재료 가운데 「흙재료」만큼 복잡한 변수를 갖는 재료는 드물것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어떤 시설물이건 지반위에 놓이거나 땅속에 그리고 물속에까지 그 설치영역을 확대하지만 지반을 기초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에서 연구과제와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한다.

종래에는 土壓이나 기초支持力이 주 연구대상이었으나 근년에는 하나의 재료로서 흙의 이용기술면에서의 개발이 새로운 공학으로써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宇宙기지建設등 첨단과학에까지 그 대상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다.

『흙도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건설과정에서 기초지반과 토질에 관계되는 문제에 당면했을때 한정된 자기지식과 경험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工期의 손실은 물론 人命피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지요』 秦회장은 土質이나 土性등을 잘 파악해서 과학적인 시공을 했을때 비로소 우리 생활환경에 편익을 주는 필요한 시설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흙의 바른 이용과 토질공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것을 다짐한다.

〈權光仁 記〉